

“기업·가계대출 부실의 독, 어느정도 쌓나”

하반기 리딩뱅크전쟁 관전포인트는 ‘대손충당금’

상반기 대손충당금 순이익

신한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 順
대출부실 선제적 리스크 관리 나서

시중은행들이 올 하반기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경기 불황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쌓기’ 눈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미국 금리인상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국내에서도 금리인상이 가계대출 부실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

대손충당금은 은행이 기업이나 가계에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미리 쌓아 두는 금액이다.

대손충당금 축적 규정은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자산 건전성 분류에 따라 명시 돼 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국내 4대 시중은행의 2017년·2018년 상반기 가계대출과 대손충당금 추이〉

은행명	가계대출 규모			대손충당금 적립규모		
	2017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증감율	2017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증감율
KB국민은행	123조4000억	133조7000억	8.34	409억	845억	106.6
신한은행	93조266억	101조7200억	9.35	1081억	1217억	12.58
KEB하나은행	96조1590억	102조6760억	6.77	304억	285억	-6.25
우리은행	104조2350억	108조250억	3.63	650억	860억	32.31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고정 분류 여신)은 대출액의 20% 이상을 충당금을 축적해야 한다. 다만, 규정에 명시된 최소 충당금 비율 이상의 축적 비율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올 상반기 4대 시중은행의 실적을 살펴보면, 대손충당금 적립 여부에 따라 회사 실적 순위가 변동되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2018년 상반기 4대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 순위는 KB국민은행(1조3533억 원), 신한은행(1조2718억 원), 우리은행

(1조2369억 원), KEB하나은행(1조1933억 원)이다. 반면 대손충당금 적립 전 이익(중전이익) 기준으로 보면 순위를 매기면 신한은행(1조8430억 원), 국민은행(1조7107억 원), 하나은행(1조5866억 원), 우리은행(1조5520억 원) 순이다.

또한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대손충당금 전입액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올 상반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845억 원이다. 지난해 동기(409억 원) 대비 106.6% 증가했고, 우리은행

해도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86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650억 원)에 비해 32.3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의 대손충당금 전입액도 12.58% 증가했다.

은행들이 가계 대손충당금 규모를 늘리는 이유는 대내외 시장의 경기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 악화에 따라 은행의 자본 건전성에 위협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였다. 이로 인해 금리격차에 따른 국내 외국자본의 유출 우려 등을 감안해 한국은행이 연내 한 차례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출자의 부담은 높아져 가계 대출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권 가계대출은 33조6000억 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인 40조2000억 원보다 낮지만, '2018년 6월 금융

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부채 규모는 1468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늘었다.

대손충당금은 이같은 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은행은 대손충당금 축적 시 대출 연체뿐만 아니라 대출부실을 예측해 손실을 미리 측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올해부터 시행중인 새 회계기준인 IFRS9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발생손실모형'에서 '기대손실모형'으로 변경해 대손충당금을 발행가능성 손실을 미리 인식하도록 하고 있어 은행들이 대출 손실의 불확실성을 미리 예측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에 따른 국내 경기 악화의 우려되고 있다”며 “최근 은행들은 미리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잠재적 리스크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잡하지 않는 가계부채

5개 銀 주택·신용대출 ‘550兆’ 육박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자 가계부채 잔액이 55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7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총 547조73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로 3조1490억 원, 전년 동월 대비로는 37조9241억 원 늘었다.

올해 초 증가세가 주춤하는 듯하던 가계대출은 3월부터 다시 전월 대비로 3조 원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4개월 만에 2조 원대를 회복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난달 말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396억 원 늘어난 389조4024억 원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초 정부가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정책을 연달아 시행한

영향으로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였다.

올 1월 도입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차주별 대출한도가 사실상 축소되는 효과가 난 데다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양도세 증가로 재건축 부동산과 청약 열풍이 다소 누그러져서다.

4월 다주택자 중과세를 앞두고 3월에 주택담보대출이 반짝 늘어났던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2조 원을 밑돌았다. 1월에는 증가액이 9천565억 원에 그치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주택담보대출이 월평균 약 2조2천억 원씩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둔화세였다.

하지만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재차 2조 원을 웃돌며 작년 하반기 수준을 회복했다. 각종 규제에도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김민호 기자 kmh0

금감원 ‘3대 혁신TF’, 올 87개 과제 이행

전체 177개 중 상반기 49% 달성

하반기까지 과제 상황 공개 방침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부터 운영중인 ‘3대(大) 혁신TF’를 통해 전체 177개 세부과제 중 87개(49.2%)를 이행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는 44개의 추진과제 중 34개를 이행해 77%의 과제 이행률을 달성했다. 이 TF는 금감원의 검사·제재 등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검사업무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조직됐다.

이에 따라 MOU 체결 프로세스 개선(MOU 및 협약서는 검사국 요청에 따라 제제심의위원회 보고 후 체결), 반복적 지적사항 공유(금융회사에 5회 이상 지적한 조치사항을 84개의 유형으로 분류해 금융사에서 활용토록 지원), 검사품질관리 실적 제고 등의 과제가 이행됐다.

〈금감원 177개 세부과제 이행상황〉

구분	총 과제수	이행완료(이행률)	완료예정	
			하반기	2019년 이후
감독·검사제재 혁신TF	44	34 (77.3)	10	-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65	12 (18.5)	39	14
인사·조직문화 혁신TF	68	41 (60.3)	25	2
‘3대 혁신TF’ 합계	177	87 (49.2)	74	16

또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자문위원회 TF는 금융회사 및 감독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TM채널 보험가입 권유방식 개선(안내자료 제공)을 비롯해 TM 상품설명 가이드라인 도입(상품설명 시 음성인식 강도와 속도 등 보험영업 시 준수사항 규정), 개인사업자에 SOHO등급 정보제공화(CB등급 조회시 SOHO등급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등 금융상품 판매시 불안전 판매를 줄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등의 과제를 이행했다. 또 수수료감면, 금리인하 등 거래조건

변경시 ‘고객알리미 서비스’ 도입하는 등 20개 과제를 이행중이다.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는 외부인 접촉 시 보고의무 신설, 내방면담 시 원칙적으로 2인 이상 동반 등 외부인 접촉제한을 대폭 강화, 갑질·성희롱 상담시스템 확충 등 41개의 과제를 이행했다.

향후 금감원은 추진중인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개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까지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안내 강화 등 74개의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유재희 기자

모든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나선다

여신협회, 신용카드 개인 약관 개정

고객이 요청하면 모든 카드사가 자사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고객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넣어준다. 고객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카드론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방향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포인트를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해 회원이 현금화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 해지 시 미상환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 명시했다.

또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를 명시하고 회원에게 알리게 했다.

기준에는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자

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게 했으나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전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에 나서게 됐다.

약관은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안내하도록 했다.

부가서비스는 전월 실적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카드 이용자의 불만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약관은 카드론(장기카드대출)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도 회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부여하게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약관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현금서비스로 확대하면서 금리인하 요구 관련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신한은행 네이버 사옥에 ‘무인화 점포’ 개점

신한은행은 성남시 판교 소재 알파돔 시티 네이버 사옥에 무인화 점포를 개점한다고 5일 밝혔다.

무인화 점포는 2015년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도입한 디지털 키오스크(Your Smart Lounge)와 ATM을 동시에 배치한 초소형 점포로 기존 ATM만 보유한 무인점포를 고도화했다.

고객은 디지털 키오스크의 화상상담 기능을 통해 통장신규, 카드발급, 인터넷뱅킹 신규 등 간편업무와 예적금/투자상품 신규 등의 상담업무를 처리하고, 현금입출금 업무는 ATM을 이용한다.

무인화 점포는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디지털 키오스크를 독립적인 공간으로 구성해 보다 편안하게 화상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무인점포와 차별화했다.

디지털 키오스크의 화상상담 공간을



완전히 분리시킨 모델은 이번이 처음으로 네이버 직원들은 일반 영업점에 가지 않고 사내 무인화 점포를 이용해 편리하게 대부분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네이버 사옥에 앞서 지난 달 31일 서울시 중구 남산타운아파트 상가동에 무인화 점포를 오픈했으며 이번 달 중 고려대학교 인근에 추가 오픈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NH농협은행 정구팀

아시안게임 국대 출정식

NH농협은행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단 출정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1959년 창단한 이래 반세기 넘는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NH농협은행 정구팀은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총 금메달 13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또한 1974년에 창단한 테니스팀은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의 성적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세계 최강의 실력을 자랑하는 NH농협은행 정구팀은 2014년 제 17회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7개의 금메달을 모두 휩쓰는데 크게 기여했다. /유재희 기자